

신앙각 칼럼



이사·주필

호남 민심이 '새 배'를 띄웠는데...

대 43.5%로 오히려 반토막이 나면서 역전을 당한 것이다. 이후 전개된 여론조사에서도 호남(發) 내리막길은 뚜렷했다. 결과적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안 신당이 민주당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데는 호남 민심이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이 안 신당에 보낸 메시지는 야권 연대였지만 그들은 변수 계산에 급급했다. 야권 연대란 있을 수 없다고 일관된 목소리를 낸 게 그에 대한 저울질이었단 셈이다.

안 신당 연대 거부, 추락 불러

이에 호남의 여론은 "이게 아닌데"로 모아졌고, 그 여파는 안 신당에 대한 지지도 추락세로 이어졌다. 호남사람을 비롯해서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적어도 48%의 판단이었다. 호남 민심이 총권력을 넘어 수도권에 전이되는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안 의원이 결국 '배를 띄우는 쪽'을 택한 것은 관세를 잘 읽었다고 볼 수 있다. 뒤쪽 수를 맞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야합(野合)이니, 백기투항이니,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슴'이니 하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알랑한 소리일 뿐이다.

지난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선출한 3당 합당을 떠올려 보자. 여소야대에 휘둘러 끌려다니던 새누리당의 전신 민자당이

합당 주체가 아니었던가. 신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건 그들 자신도 아는 일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일담도 널리 회자된 바 있다.

통합이라는 구도는 전혀 달랐지만 1997년 11월 김대중 국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공식화한 이른바 DJP연합도 '정치 9단'다운 수를 읽었기에 가능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출발은 일단 좋다. 통합 신당 창당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으로 민생에 무게 중심을 둔 것도 모양새가 괜찮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의외로 휴전 사태와 관련한 대어 공세도 적절하다.

하지만 창당으로 가기까지의 정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친노(親盧), 비노에 안철수 진영까지 가세한 이질적 상황에서 화합적 결합을 이뤄내려면 '별 팔기'와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친노 프레임에 갇혀 불협화음을 연속이었던 민주당이 통합이라는 이해관계 속에 물과 기름으로 갈라설 여지도 다분하다.

정당에 계파란 부정할 순 없지만 새 정치를 하겠다며 통합으로 가는 마당에 계파정치로 노골화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건 자명하다. 만일이지만 김한길 중심의 비노와 안 의원 세력이 함께하는 별도의 창당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다

수의 여론이 그렇다면 달리 도리가 없지 않는가.

민주당과 안 신당의 지분싸움 역시 무릎을 파는 일이다. 지난 7일 양측이 통합 방식에 관해 합의하면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당장을 맡고, 이를 전 신당 추진단 인선에서 '5 대 5 원칙'이 지켜졌지만 창당 이후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국회의원 수 '126 대 2'가 언제든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지분싸움 안 된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는 악수를 나눌 수 없는 법이다.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으면 통합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연합 정신을 살려 정부 1급 이상 중 절반의 자리를 JP측에 내준 것도 대의(大義)에 있었다.

그렇다고 지방선거에서 지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햇바지'를 인정하는 꼴이다. 어차피 통합할진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지 그마저 아니라면 구태정치를 재연하는 것이다. 물론 호남에선 경쟁 구도가 뚜렷하고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을 감안해 경선 룰에 있어 '여론조사+배심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출발점은 호남이다. 민심, 호남 민심은 우리 정치의 상수(常數)로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전복시키기도 하는 위력을 지닌 것이다.

社說

KTX '광주역 진입' 정치적 이용 말라

올 연말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KTX 광주역 진입문제가 다시금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송정역 일원화와 송정역-광주역 이원화 정책과 연관이 있고,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올 9~10월 이전에 국토부와 논의해 KTX 광주역 연장 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송정역으로 진입해 목포로 가는 KTX는 그대로 가고, 송정역이 종착역인 KTX는 후진해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동·북구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도 "광주역이 폐쇄되면 북구, 동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집값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광주역 존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시의원들은 "경제성 없

는 무리한 광주역 진입 추진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광주송정역의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이 찬·반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미 광주시가 광주역 진입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

따라서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순서다. 정치적 이용은 지역민들간에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한 9개월 후 개통되는 상황에 자중지란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

적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학기 학교폭력, 안일한 대응이 화키운다

고질적인 신학기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할 경찰과 학교는 뒷북치기 일쑤여서 한발 앞서서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중학교 2학년 25명이 3학년생 4명을 집단 구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학년생들은 자신의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급증을 빼앗은 3학년생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갈취당해 오던 하급생이 앙갚음하려다 빛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쌍방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상담 전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기에 접어들면 2교 학교폭력이 늘기 마련이다. 새로운 반이 편성되면서 이른바 '서열 정하기' 혹은 '기싸움'을 하는 바람에 그만큼 탈선이 증가하면서 위험 또한 커지는 것이다.

학교폭력 빈도가 높아지는 새 학기에

는 경찰이나 학교도 바짝 긴장하지만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다지만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의 집중 단속기간에 비웃기라도 하듯 학교 시간 공원에서 벌어져서 집단 패싸움 사건은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준다. 이제 경찰과 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별 '일진'의 동태를 파악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사고가 터진 후 대응자극할 것이 아니라 미리 현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다.

또 학교 지킴이,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대해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류는 아득한 고대부터 나무를 숭배해 왔다. 나무는 인류 탄생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 무엇보다도 오래 살며,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생물체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거대한 존재는 당연히 영계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지하의 심연에 뿌리를 내리고 청명한 하늘에 가지를 늘어뜨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나무를 '신과 예언자의 통로' 또는 '신비의 사다리'로 여겨왔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지에는 세계수(世界樹) 또는 우주목(宇宙木)으로 불리며 숭배를 받는 나무들이 적지 않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위그드라실(Yggdrasil)은 '신들의 아버지' 오딘(Odin)이 심었다는 거대한 물푸레나무로, 가장 유명한 세계수 가운데 하나다. 창세기 예멘동산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에리두 지역 신화에 나오는 '키스카누' 그리고 중국 도광(都廣)을 명목화시켜 세계에 알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해외에 나가면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다른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우리 것을 지키고, 그 힘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민족의 주체성, 자부심과도 연결된다.

남들보다 앞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를 만든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에서 세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지역이 희망이고, 지역이 살길이다.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섬스러운 우뚝이 존재한다. 바로 보리수(菩提樹)다. 부처가 보드카야에 자리 잡은 이 나무 밑에 풀을 깔고 앉아 성불(成佛)했다. '우주를 뒤흔든' 부처의 득도 순간을 함께하면서 '불교의 상징'이 된 보리수이지만, 이후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6세기 말, 불교를 박해했던 벵골의 왕 카산카는 이 나무를 불태우고 뿌리에 사탕수수즙을 뿌려 영원한 소멸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싹을 틔워 새 생명을 이어나간 보리수는 1876년 벵골을 맞고 쓰러지지만 세계수들이 적지 않다.

어가던 보리수는 1876년 벵골을 맞고 쓰러지지만 세계수들이 적지 않다. 담배 또다시 부활, 지 금은 2500년 전 그때 그 자리에서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가 부처 득도 당시 주변에 있던 보리수의 '직계 후손' 목목한 그루를 한국에 보내왔다. 7개월가량 자라 키가 50cm 정도에 불과하지만 부처의 성불을 지켜본 보리수의 DNA를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오리지널이나 다를 판에 높이 솟아 있다는 건목(建木)도 대표인 우뚝목이다. 우리 단군신화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교의 상징'이 된 보리수(神檀樹)도 세계수의 범주에 포함된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은펜칼럼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사고가 있었다. 지체장애1급인 P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P씨는 86세 노모와 생활하고 있었고 모친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재가 났다. 1급 중증장애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지원 대상 4700명을 맡는 복지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야하는데, 현실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 못 하고, 신청하더라도 처리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롭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조건 신청인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복지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사 수를 확충,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가구의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의지 부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안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지원 대상 4700명을 맡는 복지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야하는데, 현실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지 못 하고, 신청하더라도 처리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롭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조건 신청인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복지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사 수를 확충,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가구의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 또한 현행 신청주의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써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신체적, 경제적, 정보접근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제공하지 않는 행정권의주의적인 소극적인 제도는 즉시 타파되어야 한다.

한편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더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민이 존귀한 삶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는 민생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글로벌시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 대기업과 같은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외부지향적 개발은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생활경제와 행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적정규모와 적정이익을 유지하며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개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에 산다는 것이 결코 국제세계를 멀리 하거나, 국제무대와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다. 세계 속의 일부로 살면서 세계를 활용해야 살아남는다. 세계의 일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더욱 지역적 전문성, 특성이 요구된다. 국제세계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계를 만족시키려면 지방을 살려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중앙집중형 시대에는 규모로 승부하고 살았다. 소수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절감해 경제를 꾸려갔다. 그러나 다양한 감성의 시대에는 효율로만 무장한 단순한 재화들이 통하지 않는다. 이젠 범위의 경제가

더 유효하다.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한 지방의 역할이 요구된다. 많은 전통 유산이 남아 있고, 지역 특산물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지방이야말로 새로운 창조 공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적 전문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개발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의 단위도 최근에는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로 좁혀지는 추세다. 경제가 다품종 소량시대, 감성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국가보다는 작은 지역 공간이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이젠 경쟁력 있는 국가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결정된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들이 지방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대기업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상품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세계 무대에도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다양한 지방, 지역공동체가 서로 연대하여 세계와 연결되면 국가의 가치도 상승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 기업활동으로 얻어낸 이익을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명목화시켜 세계에 알려야 한다.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해외에 나가면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다른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우리 것을 지키고, 그 힘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민족의 주체성, 자부심과도 연결된다.

남들보다 앞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를 만든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에서 세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지역이 희망이고, 지역이 살길이다.



이상면 광주대 교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